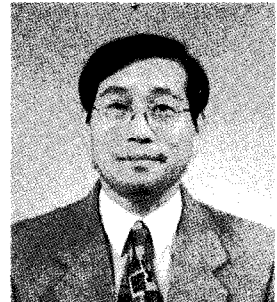


197년도 낙농육우산업을 전망한다

특집

낙농산업 전망



이 만 재
서울유우협동조합 생산상무

1. 머리말

낙농과 유가공산업은 지금 중대한 전환적 국면에 처하여 있다.

수입개방에 의한 산업피해의 발과 분유류에 대한 물량규제계획의 발표, 낙농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노력과 낙농진흥법 개정의 추진, 우유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의 다양한 제기, 유가공업체의 경영변신을 위한 시도, 낙농가의 경영구변화의 전반적인 흐름, 세계 곡물시장과 사료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낙농과 유가공산업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이 최근 일어난 사이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의 낙농시장은 지금 까지 국제거래되어 왔던 분유

류와 치즈, 버터등의 보존성 가공제품 뿐 아니라 멸균유나 장기보존 살균유 까지 세계우유시장을 넘나 들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 우리의 낙농과 유가공산업을 또 다른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다양하고 심각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거의 모든 식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규제를 자유화하였고 유일하게 멸균유에 대해서만 한국정부의 반대 의견에 대한 WTO분쟁조정 조치 권발동을 유보한채 다음 단계인 제조준비를 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은 그러한 국면의 현실적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일련의 낙농현안과 유

가공산업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1995년 가을부터 1996년 5월까지 임시구성된 낙농제도개선위원회가 같은 기간 중에 우리나라 낙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 대정부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게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하나의 사건이며 그 중 유가공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있는 사항의 검토, 발의 내용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재음미해 봄으로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낙농시장의 국내외 변동

가. 세계시장

<동향>

● 1996년 세계원유생산량은 1%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며 1997년에는 다소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유, 유제품 소비는 1996년에는 1%이하의 증가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1997년도에는 세계경기침체의 다소간 회복국면으로 보아 1996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원유생산 증가는 세계곡물작황의 호조와 가격의 하락, 1996년도와 같이 세계유제품시장의 가격상승에 따른 미국, 오세아니아국들의 생산자국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우유소비정책은 세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러시아 등 유제품 대량수입국들의 구매력저하로 분석되었으나 1997년에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소비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 그 결과 분유류와 버터의 재고량이 1996년에는 1994년수준으로 다시 증가되고 가격은 다시 떨어지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 그러나 전체적인 추이는 재고감소, 수요증가로 가격의 꾸준한 증가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망>

● 1997년도 세계의 우유생산과 소비는 1996년도 수준 또는 약간 증가로 1%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 1997년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안정과 수입수요의 증가, EU의 지속적인 PSF의 삭감, 세계 최대 우유생산국인 소련의 우유생산감소 등으로 우유, 유제품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표1> 분유류, 버터, 치즈의 EU 14국 수급동향

(단위: 천톤)

구분	1993	1994	1995	1996추정
<버터>				
공 급	2,182	2,109	2,026	1,954
수 요	1,880	1,895	1,883	1,786
기말재고	282	194	143	168
<치즈>				
공 급	5,663	5,761	5,909	5,928
수 요	5,423	5,548	5,633	5,651
기말재고	1,290	1,288	1,319	1,287
<전지분유>				
공 급	834	834	892	855
수 요	840	847	901	848
기말재고	45	32	23	30
<탈지분유>				
공 급	1,477	1,396	1,386	1,337
수 요	1,325	1,173	1,229	1,117
기말재고	152	223	157	220

<표2> 1996년9월 5대 유업체별 우유소비현황

(단위: 천개/200ML/일)

유업체	1995.9	1996.8	1996.9	증감%	
				전년동기	전월
가	5,865	5,879	6,177	105.3	105.1
나	1,962	1,973	1,939	98.8	98.3
다	2,048	1,845	1,904	90.0	103.2
라	1,605	1,687	1,668	103.9	98.9
마	1,670	1,347	1,458	87.3	108.2
계	13,150	12,731	13,146	99.9	103.3

(자료)농림부, 유가공협회, 서울우유, 1996. 10

<표3> 1996년 여름 5대유업 특별우유의 판매추이

(단위: 천개/200ML/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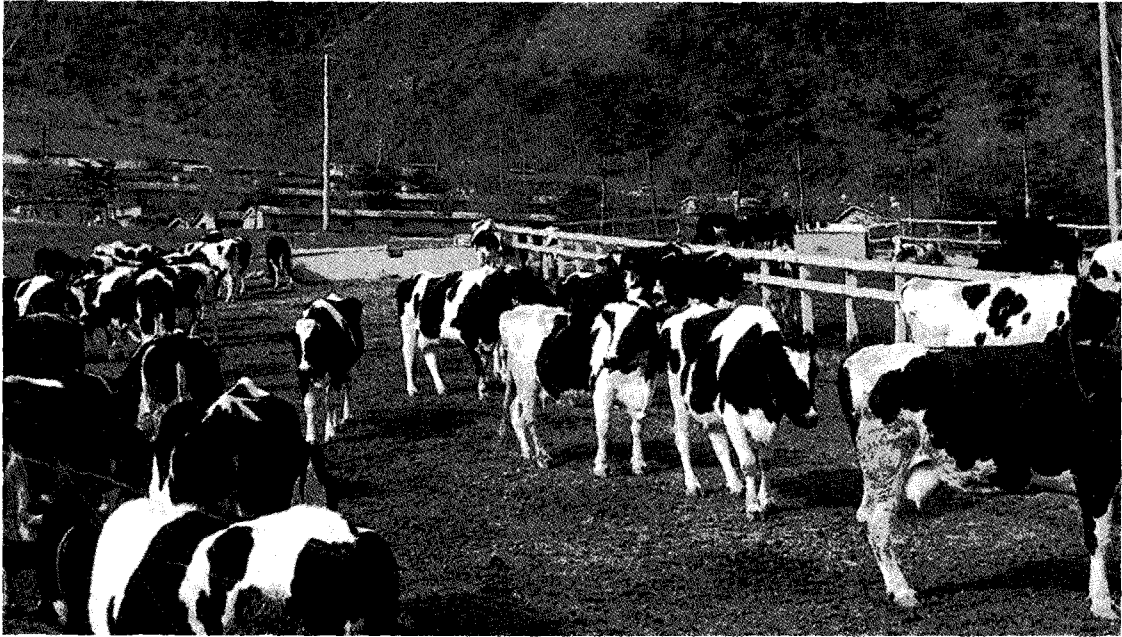
구분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증감%
5개사 합계	1,541	1,701	1,810	1,679	92.8
우유총소비중 비율%	—	—	14.2	12.8	90.1

(자료)서울우유, 1996. 10

● 단기적으로는 1996년 사료곡물작황이 대풍작으로 우유생산증가요인이 있어 가격상승을 다소 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장기적으로는 소련과 동남아

신흥경제성장국들의 꾸준한 소비 증가로 향후수년간 소비증가가 예상되고 반면에 사료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생산은 증가율이 소비에 비하여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제



품의 재고감소와 더불어 전반적인 유제품 가격의 상승국면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내시장

<동향>

● 1996년 원유생산량은 2,068천톤으로 1995년에 비하여 3.5% 증산이 예상된다.

● 소비량은 2,250천톤으로 1995년대비 약6%증가를 전망하고있다.

● 시유소비량은 1995년 가을 우유위생논쟁, 1996년 광우병, 0-157 대장균, 발암물질논쟁 등으로 1995년도 보다 약2%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중소규모의유업체와 낙농조합의 시장은 대폭 격감되고 서울우유 등 대유업체는 현상유지 또는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다.

● 최근의 우유 소비추세(표2, 3 참조)

〈표4〉 우유 수급동향

구분	1988	1990	1994	1995
젖소사육두수	480천두	504	552	553
우유 총소비	1,652천톤	1,879	2,078	2,144
1인당우유소비	39.4kg	42.8	46.8	47.8
국산/수입%	100%자급	100	94	91
품목별소비량/천톤				
시 유	1,304	1,337	1,553	1,556 ***
분 유	18.8	20.8	23.0	20.2
조제분유	20.8	25.5	26.0	25.9
연 유	2.1	3.4	3.3	3.8 ***
치 즈	5.6	6.8	13.2	13.9 ***
버 터	4.1	5.1	3.0	2.8
발 효 유	226	353	524	584 ***

(자료)농림부, 1996

● 우유위생논쟁, 발암물질파동 등의 여파와 최근의 경기침체로 많은 유업체들이 작년보다 마이너스성장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유업체 스스로도 특별우유전략으로 전체 우유시장을 흐려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승자박하는 경험적 교훈을 얻고 있다.

● 지방의 군소 낙농조합들의 우유위생문제와 잉여로 인한 저가 물량공세로 축협우유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상품신뢰를 실추시켜왔다.

● 우유위생논쟁(95년10월-11월), 광우병파동(96년3월), 0-157대장균사건(96년7월), 프탈레이터-

DOP, DBP사건(96년9월) 등 일련의 우유, 유제품 위생, 위해문제와 관련된 뉴스로 소비자들의 우유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상품정보에 대한 혼란상태에 빠져있다.

● 전반적인 유제품수요는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유제품의 영향으로 분유류와 버터의 소비는 감소추세이고 시유, 치즈, 발효유의 소비는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유사제품의 소비 대체가 극심하게 일어난 분유와 버터의 소비가 시장을 잃어가고 있으며 치즈, 발효유는 수입제품의 직접 소비가 증가되기 때문으로 보이며 시유는 서울경기지역보다 지방수요의 증가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 음용유 중 가공우유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발효유는 초기 생산되었던 액상요구르트-주로 65ml용량-의 소비는 둔화 또는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드링크형 요구르트-100ml~150ml용량-인 고가 발효유의 소비는 크게 신장되고 있다.

● 1995년10월 부터 호주산 멸균유가 상륙되었으나 시장침투는 아직 불투명하다.

● 1996년 9월 부터 미국의 장기보존살균유(ESL-EXTENDED SHELF LIFE MILK/ULTRA PASTEURIZED/5-8주 냉장유통/UHT-138C-2초-과산화수소분사, 자외선조사, 양양실충진 등 거의 멸균공정)가 해상운송으로 주한미군에 공급개시함으로써 불원간 시유에 대한 자유화조치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한국 시유시장공략준비가 개시된 셈이며 앞으로의 귀추

가 매우 주목되는 사항이다.

● 1995/1996년 분유류의 수입급증으로 시유생산의 계절적수급 불균형 외에 배달원들의 배달체계변화로 성수기 주말에 분유를 생산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유가공생산의 구조적 불균형 사태가 야기되고 있어 시유생산 및 공급체계에 대한 유업체의 고민이 증대되고 있다.

● 최근 한국유가공품질보증회, 한국HACCP연구회 등이 발족되어 우유, 유제품에 대한 품질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학계의 공동노력이 진척되고 있다.

<전망>

1997년 전국원유생산은 약3%의 증가가 예상되며 원유 총소비량은 약5~6%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시유소비량은 1995/1996년도와 같은 총격적 우유관련 논쟁이 없다면 2~3%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 1996년10월23일 무역위원회 의 낙농산업피해판정 결과로 1997년 성수기 부터 원유수요는 급증할 요인이 제공되고 있으나 정부의 긴급 SAFE-GUARD규제조치 내용이 예년의 수입물량의 약 절반수준인 1만5천5백톤수준의 물량규제로 결정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규제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조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다음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쿼타제도에 의한 규제 방안일 경우

유사분유를 포함한 일체의 분유류의 즉각적인 수입동결후

수급 부족분에 대하여만 실수요자에게 쿼타배정하여 일반관세로 수입공급

- 관세화에 의한 규제방안 또는 관세화/쿼타제 동시규제방안 등을 고려

- UR협상시 분유류에 적용키로 한 적용 초년도 관세-탈지, 전지분유 220%, 유장분말 90% 등의 관세를 해당년도 적용율로 적용하나 다소 시간이 소요

- 1996년 4월 브라질정부가 우리나라의 섬유류에 대하여 산업피해판정직후 즉각 전면수입금지과 400%의 관세화조치를 단행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기대

● 낙농진흥법 개정이 1997년도 임시국회 중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으로 개정이 실현 될 경우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은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 낙농산업의 총체적문제는 개선의 차원을 넘어 "개혁의 조치"가 필요함이 제창되고 있다(KREI, 신, 1996)

● 시유의 공급체계에 대한 중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예고되고 있다.

- 유통기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배달체계에 대한 재조정

- 배달 및 지역수송장비의 혁신

- 포장형태의 전면적인 재검토

크기, 용기의 형태와 재질 등

- 지역 공동유통체계 고려

● 시유의 새로운 개념도입을 추진 하고있다.

- 현재의 일부특별우유 개념의 고가격시유로 부터 전면적인

1등급우유의 공급개념

- 우리나라 특유의 시유에 대한 잘못 인식 된 소비, 판매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낙농선진국의 소비행태로 획기적인 개혁 시도

● 1997년에는 HACCP의 도입이 유업체에 부분적으로 실시 될 전망이다. 현재 3개유업체에서 활발히 준비작업 중

● 미국의 "REAL"마크 표시제도와 유사한 유제품의 품질보증표시제도 꾸준히 추진될 전망이다.

● 장기전망

<표5> 우유의 생산과 소비 장기추정

구 분	1996	2000	2004	2020
젖 소 사 육 두 수	560천두	565	580	700
1인당우유소비량	50.4키로	59.2	64.2	83.4
우유 총소비량	2,280천톤	2,770	3,091	4,218
국내산	2,056	2,216	2,318	2,953
수 입	224	554	773	1,265
자급율	91%	80	75	70
인구	4,525만명	4,679	4,793	5,058
1인당 GDP(95불변가)	\$ 10,780	\$ 13,690	16,560	32,020

(자료)KDI, 축협중앙회, 1996

3. 1996년과 낙농제도개선 위원회

낙농제도개선위원회는 1995년 가을에 낙농관련인 50명으로 임시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고 1996년 봄에 다음과 같은 낙농산업의 총체적인 발전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결하였다.

여기서는 유가공부문에 직접 관련되고 있는 사항과 내용 중 1997년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이 시행 될 정부의 추진방침 등만 골라서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집유제도의 개선

● 집유조합으로 일원화

- 전국 집유권을 20개지역으로 광역화
- 집유장의 통합-80개를 60개로
- 유업체 집유장비와 차량을 집유조합이 인수

● 집유노선의 단축

- 현재 집유노선이 40%이상이 100Km이상인 것을 모든노선이 100Km이하로 축소
- 평균집유시간 260분에서 120분으로 단축

●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 생산제도 도입

- 생산할당제 시행
- 초과생산분에 대한 집유조합 자율처분

다. 낙농민간전문기구 설립운영

● 낙농진흥회 신설-우유수급, 가격조절, 원유배분,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상설기구

● 기타 연구, 조사, 홍보 등의 부차적업무도 수행

● 운영경비는 연간 약20억원으로 집유일원화 절감액 200억의 10%수준

라. 원유검사의 공영화

- 독립된 검사기관에서 공정성, 신뢰성 유지
- 낙농진흥회서 실시

마. 우유위생 및 품질체계 개선

● 우유의 위생, 품질관리체계 강화
- CODEX/FDA 수준으로 기준 설정

- HACCP조기시행

- 우유유통 위생관리강화

● 원유검사법과 장비개선

- TTC 2법

- 장비현대화

● 원유위생등급을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 조정

- 세균수 50만(96.7)-30(97.6)

- 10(98)

- 체세포 60만-50(97.1)-40(98)

● 신선, 안전한 유제품에 대한 「품질보증표시제」실시

- 국산 "신선우유"의 차별화를 위한 명칭, 표시방법의 제도화

